

전북 고로쇠 수목단지 조성



◇고로쇠 수액 채취장면

전북도내에 고로쇠약수 채취를 위한 수목단지가 집중 조성돼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와 임협전북도지

생협 전북지부를 처음으로 1천6백여 시범채취
2006년까지 54억투자, 1백45만그루심기로
전북도, 임협전북도지회

전북도내에 고로쇠약수 채취를 위한 수목단지가 집중 조성돼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와 임협전북도지

전북도내에 고로쇠약수 채취를 위한 수목단지가 집중 조성돼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와 임협전북도지

전북도내에 고로쇠약수 채취를 위한 수목단지가 집중 조성돼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와 임협전북도지

전북도내에 고로쇠약수 채취를 위한 수목단지가 집중 조성돼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와 임협전북도지

전북도내에 고로쇠약수 채취를 위한 수목단지가 집중 조성돼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와 임협전북도지

전북도내에 고로쇠약수 채취를 위한 수목단지가 집중 조성돼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와 임협전북도지

사설

생약협회를 3년동안 이끌어갈 11대 회장단이 출범했다. 이번 회장단은 21C를 눈앞에 두고 새롭게 구성했다는 점에서 그만큼 관심이 높다. 우선 기대되는 부분은 임연학회장이 오랫동안 협회의 부회장직을 맡아오면서 협회의 속사정이나 생약업계의 숙원사업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백기가 없이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아직 그 추진주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곧 그 실체들이 내 보이며 생동감 넘치는 활동상을 보여줄 것으로 믿는 것이다. 따라서 11대 회장단에 바라는 바도 많다.

우선 생산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협회가 자립의 기틀을 다지는 사업을 과감히 개발해야 한다. 여차피 수입이 불가피한 생약재는 협회가 그 수입권을 주도적으로 맡아 수급을 조절하는 역할에 깊숙히 관여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재배가 가능한 품목까지도 무분별하게 수입돼 위협받고 있는 국내 생약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협회의 목소리가 다소 높아야 한다는 지적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가공수출용으로 수입된 일부 한약재마저 시중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또한 협회가 나서야 할 부분이다. 유통현장에서 국내산과 수입산이 구별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일부 규격포장된 한

신 집행부에 바란다

약재엔 원산지가 표시되지만 포장되지 않은 대부분은 국내산과 수입품이 구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판매장을 주요시장으로 확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질 좋은 국산한약재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계에서 생약업계 만큼 유통구조가 낙후된 곳도 또한 없다. 연간 유통량이 6천여억원어치를 내다보면서도 이렇다할 공판장 한 곳 없는 곳이 생약업계다. 94년까지만 해도 생약협회 생약공판장과 대구약령시의 대구 한약도매시장이 명맥을 이었다.

그러나 생약협회 공판장은 지난해 우수국산한약재 상설매장으로 명칭을 바꿔 규격포장한 약재를 소매거래하기 때문에 대량 농민들로 부터 구매하기란 한계가 있고 대구한약도매시장은 연간 6백여t을 팔아주는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농민들의 이용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청과류나 채소류는 전국에 14개소의 공영도매시장이 개장돼 있고 이 도매시장은 오는 98년까지는 34개로 늘어날 형편임을 고려하면 소외돼도 이만저만 소외된 곳이 아니다. 공영도매시장이 없는 곳에 공정한 유통이 있을리 없다. 협회 임원진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항상 파는 것이 고민이라는 농민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한다. 농민들은 생산을 규모해 보고자 해도 팔 길이 막막해 엄두를 못내겠다는 것이다.

현지 수집상에게 팔거나 도시의 도매상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팔아치우지만 대부분이 현찰을 받은뒤 넘기는 것이 아니라 돈은 나중에 지불기로 하는 위탁거래가 주종이다. 이런 유통구조에서는 업계가 발전할 수 없다. 이밖에 규격화문제, 생약재 수급조절 문제등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협회의 11대 임원진은 이미 출범했다. 머뭇거리길 시간이 없다. 3년은 길지않은 기간이다. 서울의 가락시장이나 구리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곳에 농산물인 생약재취급 전용공판장을 세울수 있는 방안 만이라도 하루빨리 나왔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인 것이다.

고생산량이 부족할 때는 한국농업개발에서 책임지며 식재후 3~4개월이 지나도록 안자랑을 겪어 오는 한물도 해준다든 내 용도 계약조건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농민신문보도에 따르면 광고만 받고 3천4백만원의 들여 천마종균과 참나무원목을 구입해 달고나과 감자를 심던 밭 2천5백평에 천마재배를 시작한 피해농민 송관성 씨 48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는 분당 3kg을 장담한다면 업자의 주장과는 달리 50~80g의 생산량에 그쳐 농사를 망쳤다. 고열을 호소하고 있다.

경북상주 새로운 지역 특산품이로

인삼재배 확산

경북상주 새로운 지역 특산품이로 인삼재배 확산

경북상주 새로운 지역 특산품이로 인삼재배 확산

경북상주 새로운 지역 특산품이로 인삼재배 확산

경북상주 새로운 지역 특산품이로 인삼재배 확산

경북상주 새로운 지역 특산품이로 인삼재배 확산

경북상주 새로운 지역 특산품이로 인삼재배 확산

경북상주 새로운 지역 특산품이로 인삼재배 확산

경북상주 새로운 지역 특산품이로 인삼재배 확산

경북상주 새로운 지역 특산품이로 인삼재배 확산

경북상주 새로운 지역 특산품이로 인삼재배 확산

경북상주 새로운 지역 특산품이로 인삼재배 확산

경북상주 새로운 지역 특산품이로 인삼재배 확산

무박피한것이 더 효능높다

경북도 농촌진흥원 의성작약시험장

작약

1면에서 문제의종묘분양업자들은 〇〇농업개발, △△영농산업, ××생약개발 등의 회사이름을 내세우고 있다. 농민들이 한국농업개발 등과 맺은 계약내용이 한 국농업개발에서 공급하는 참나무원목과 천마종균으로 천마를 재배하면 2년후 모양의 관계없이 전량을 5%의 수수료만 제외하고 공판장 및 시중 시세에 준하여 구매한다 는 것이었다. 또 평당 6백kg의 수확량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작약의 수확후 곱질을 벗겨 건조기공하는 관행 방법보다 곱질을 벗기지 않은 채 로 이용하는 것이 일 손절감은 물론 약재로서의 효능도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농촌진흥원 의성작약시험장이 박피기를 이용, 10분정도 씻어주기만 한 무박피작약과 90분간 씻어주는 동시에 곱질을 벗긴 기계박피작약을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약의 주성분인 파에오니플로린의 함량이 기계박피작약은 2.8%로 낮게 나타났지만 무박피작약은 3.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파에오니플로린 함량이 높아가는 뿌리와 함께 번식용으로 이용할 수 없는 노두도 약재로서 이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재배농가에서는 뿌리의 곱질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박피작업에 소요되는 일손을 8% 줄일 수 있을뿐 아니라 수량 손실도 없어 18%의 수량증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린이 표피에 5.1%, 피층에 3.28% 포함돼 있는 곱질부분에 다량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름 5mm이하의 가는 뿌리와 노두부분은 곱질뿌리보다 파에오니플로린의 함량이 높아가는 뿌리와 함께 번식용으로 이용할 수 없는 노두도 약재로서 이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재배농가에서는 뿌리의 곱질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박피작업에 소요되는 일손을 8% 줄일 수 있을뿐 아니라 수량 손실도 없어 18%의 수량증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